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한국 남녀 소총복사 단체전 나란히 우승… 사격서만 벌써 금메달 8개 명중

15일 광저우 아오티 사격장에서 열린 광저우아시안게임 남자 50미터 소총 복사경기 단체전 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의 한진섭, 김학만, 김종현(왼쪽부터)이 시상대에 오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광저우 아오티 사격장에서 열린 광저우아시안게임 여자 50미터 소총 복사경기 단체전 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의 권나라 이윤채, 김정미(왼쪽부터)가 시상대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출신 김종현 '금 총성' 울렸다

맏형 김학만 개인전 우승 2관왕

광주출신 김종현(25·창원시청)이 맹활약한 한국사격 사격팀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광저우 하늘에 금빛 총성을 연달아 울렸다.

변경수(52) 감독이 이끄는 한국 사격 대표팀은 15일 광저우 아오티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경기에서 남자 50m 소총복사 단체 및 개인전과 여자 50m 소총복사 단체전에서 금메달,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이날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보탰다.

첫날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낸 한국 사격은 14일에도 금메달 4개를 쓸어담더니 이날도 기세를 이어가며 초반 한국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를 주도했다.

김종현과 김학만(34·상무)·한진섭(29·충남체육회)으로 구성된 남자 소총 대표팀은 이날 남자 50m 소총복사 단체전에서 합계 1785점으로 아시아신기록을 세우며 2위 중국(1774점)과 3위 카자흐스탄(1771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각화중, 광주체고를 졸업한 막내 김종현이 1시리즈와 4, 5시리즈에서 연달아 100점 만점을 명중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뽐내며 한국의 금메달 레이스를 주도했고, 김학만과 한진섭도 40차례씩 표적 정중앙을 명중해 힘을 보탰다.

대표팀은 첫 번째 시리즈부터 298점을 쏴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제치고 앞서나갔고, 4시리즈와 5시리즈에서 각각 299점과 298점을 맞혀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어 '맏형' 김학만은 개인전에서도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김학만은 이날 50m 소총복사 결선에서 103.3점을 쏴 본선 595점과 합계 698.3점으로 유리 멜시토프(카자흐스탄, 679.9점)를 꺾고 우승했다.

그러나 본선 1위(596점)로 결선에 오른 김종현은 갑작스런 난조를 보이며 99.6점에 그쳐 합계 695.6점으로 7위로 추락하고 말았다.

김정미(35·인천남구청)과 이윤채(28·우리은행), 권나라(23·인천남구청)로 구성된 여자 소총 대표팀도 여자 50m 소총복사 단체전에서 합계 1775점을 쏴 2위 태국(1763점)과 3위 중국(176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차상준(35·노원구청)과 황윤삼(33·서산시청), 홍성환(27·서산시청)으로 이뤄진 속사권총 대표팀은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합계 1728점으로 중국(1745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가별 메달 순위

(15일 20시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48	18	17
2	한국	18	13	15
3	일본	11	23	21
4	대만	2	3	9
5	홍콩	2	3	2
6	북한	1	3	6

지용민-김경련 정구 혼복 금

김태정-김애경 짝은 동메달

지용민(29·이천시청)-김경련(24·안성시청)이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구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용민-김경련은 15일 중국 광저우 텐허 테니스스쿨에서 열린 정구 혼합복식 결승에서 청추링-리자훙(대만)을 5-3(6-8 6-4 4-1 4-0 3-5 4-0 4-6 4-0)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정구 혼합복식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2002년 부산 대회부터 3회 연속 정상을 지켰다. 또 김경련은 2006년 도하 대회 여자 단체전 우승에 이어 2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지용민-김경련은 8강에서 자오양-추쓰쓰(중국)를 5-2(5-3 1-4 4-0 6-4 0-4 5-3 7-5)로 물리쳐 동메달을 확보했다. 4강에서 항자링-류자룬(대만)을 5-0(5-3 4-2 4-2 5-3 4-2)으로 완파하며 체력을 아낀 지용민-김경련은 같은 시간 김태정(34·이천시청)-김애경(22·농협중앙회)을 풀세트 접전 끝에 5-4(0-4 4-2 4-2 4-6 4-1 1-4 4-1 0-4 9-7)로 제친 청추링-리자훙에 비해 체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긴 해도 지용민-김경련은 곧 이어 열린 결승까지 40분 가까이 쉴 수 있었지만 청추링-리자훙은 10여분 잠시 숨을 돌리고 바로 센터 코트로 이동해야 했다.

첫번째 게임에서 듀스 끝에 6-8로 졌지만 김태정-김애경을 상대하느라 진을 뺀 청추링-리자훙의 기운을 빼며 오히려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두번째 게임을 역시 듀스까지 벌여 6-4로 잡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이후 3,4게임은 4-1, 4-0으로 따내며 3-1을 만들었다.

김태정-김애경은 항자링-류자룬과 함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용민은 "대표 선수가 처음 돼서 나온 대회에서 우승해 날아갈 것 같다. 긴장감도 컸고 가슴앓이도 많았는데 금메달을 따내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정구는 16~17일 남녀단식, 18~19일 남녀복식 경기를 통해 남은 금메달 4개의 주인을 가린다. /연합뉴스

정구 혼합복식의 지용민-김경련과 김태정-김애경이 15일 오후 중국 광저우 텐허 테니스스쿨에서 열린 시상식이 끝난 뒤 메달을 깨물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정, 김경련, 지용민, 김애경. /연합뉴스

유도 66kg급 김주진 "나도 금메달"

왕기춘·김잔디 日선수에 '발목' 銀

김주진(24·수원시청·사진)이 남자 유도 66kg급에서 화려하게 비상했다.

김주진은 15일 광저우 화궁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66kg급 결승에서 모리조히드 파르모노프(우즈베키스탄)을 안다리걸기 유효승으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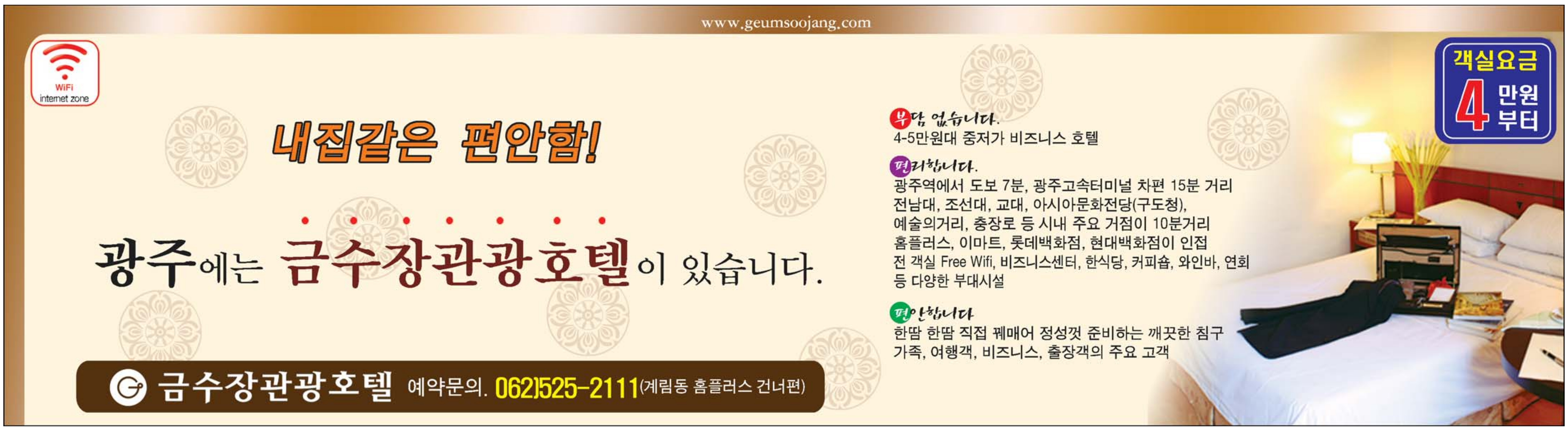
김주진은 금메달을 확정하는 순간 머릿속에 2년전 중국에서 치러진 베이징 올림픽을 떠올렸다.

당시 김주진은 2008년 2월 파리오픈에서 우승해 66kg급 '다크호스'로 불렸고,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2회전에서 강자 데를리를 만나 발뒤축후리기로 효과를 뺏겨 분패했다.

이후 김주진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2009년 도쿄 그랜드슬램 은메달, 올해 파리 그랜드슬램우승과 러시아 그랜드 슬램 은메달 등 실력을 쌓아왔다.

남자부 73kg급 결승에 나선 왕기춘(22·용인대)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아키모토 히로유키(일본)를 상대로 연장 종료 23초를 남기고 다리잡아매치기로 유효를 내줘 패했다.

김잔디(19·용인대) 여자부 57kg급 결승에서 마쓰모토 가오리(일본)에게 경기 종료 17초를 남기고 발뒤축걸기 유효를 내주며 졌다.

김잔디는 경기 초반부터 마쓰모토의 굳히기 공격을 잘 피해 다녔지만 종료 2분17초를 남기고 왼쪽 눈의 렌즈가 빠지면서 경기 감각이 흐트러지더니 경기 막판 유효를 허용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